



오는 201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시철도 1호선 등 소위 공공교통에 지원하는 재정 규모가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오후 금남로 지하철 4구역에서 평동행 도시철도 1호선을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000억 넘어선 대중교통 지원금 광주 교통시스템 개편 서둘러야

최저임금 상승·비정규직 정규직화로 혈세 투입 눈덩이
누진 요금제·승용차 규제 등 공공교통 편의성 제고 필요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시철도 1호선에 지원되는 지원금 규모가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서 오는 2019년에는 1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인건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운영 수익은 감소나 정체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 운행 규제, 혈세가 투입되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시스템의 전면 개편, 누진 요금제 검토 등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도시철도 1호선 지원금은 각각 563억원, 454억3400만원으로, 1017억 3400만원에 이른다. 2019년 준공영제 지원금은 604억원, 도시철도 1호선 지원금은 491억4100만원으로 매년 5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2015년 연료비 및 인건비 절감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금 규모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운전원 인건비가 매년 2~5%씩 증가한 것이 결정적이다. 그 외에 표준연비제 도입은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연료저감장치로도 연비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문제제기로 도입이 불투명하고, 임원·관리직 인건비 감축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운송수익은 지난 2014년 445억원에서 요금이 인상된 2016년 508억원으로 잠시 올랐지만, 장기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형운전원의 시급이 오르는 것은 물론 정규직 운전원의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에서만 순수하게 지난 2015년 84억원, 2016년 80억원, 2017년 45억원 등이 증가, 요금 인상분으로도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원 규모도 2018년 472억5100만원, 2019년 491억4100만원, 2020년 511억7000만원으로, 조만간 5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역시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노인 등에 적용되는 지하철 무인승차 부담도 매년 커지고 있다.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단체들은 국민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일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국토

교통부가 코레일에 무인수송비의 50~70%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의 교통시스템의 공공교통 위주 전면 개편, 이동거리에 따른 누진요금제 도입 등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제도를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도심 내 자동차 운행 및 주차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대책을 수립해 공공교통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지원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을 계기로 혁신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시 재정 지원과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은 “과거 선진국은 물론 최근 서울에서도 자동차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며 “자동차가 아닌 사람을 위한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정체성, 지속가능한 환경, 공공교통의 부담 감축 등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민의당 반통합과 ‘민평당’ 창당발기인 대회

현역의원 16명 참여

안대표, 당원권 정지 맞붙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인사들로 구성된 민주평화당(민평당) 창당추진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다음달 6일 창당을 목표로 본격적인 신당 창당작업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면> 안철수 대표 등 당권파(통합찬성파) 주도로 개최된 당무위원회에서 개정된 당규의 효력 여부를 다루는 법원의 결정과 합당안 의결 여부를 결정짓는 2·4 전당대회라는 2가지 변수가 남아있으나 이날 창당발기인 대회를 기점으로 국민의당 분당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평당 창당추진위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창당발기인은 총 2485명으로 확정됐

며 창당준비위원회에는 조배숙 의원이 선출됐다. 천정배 정동영 조배숙 박지원 유성업 장병관 김광수 김경진 김중회 박주현(비례) 박준영 윤영일 이용주 장정숙(비례) 정인화 최경환 의원(신수·가나다 순) 등 총 16명의 현역의원도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권노갑 정대철 이훈평 등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상임고문 및 고문단 16명도 발기인에 참여했다. 박홍을 목포시장, 고길호 신안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2명과 지방의원 85명, 원외 지역위원장 33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날 창당발기인대회에 모인 민평당측 인사들은 창당 취지문을 통해 “민주·평화를 부정하는 수구보수세력과 아합하는데 동의할 수 없어서 분연히 박차고 나왔다”며 “보수야합에 단호히 반대하는 개혁주의 민생제일 정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평당 창당위는 애초 내달 5일로 예정된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지

역 시도당 창당대회를 내달 1일로 앞당겨 열고 6일에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창당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민평당의 창당일정은 다음달 4일 예정된 국민의당 전당대회 결과와 국민의당이 최근 개정된 당규효력에 관한 법원의 결정 내용 등 2가지 변수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 대표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합당반대파 의원 등 당원 179명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비상징계안을 의결하면서 합당 찬·반 양측의 결별은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당무위의 징계대상에는 천정배·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호남 중진을 비롯해 민평당 창당에 참여해온 의원 17명도 포함됐다. 전당대회 의정으로서 안 대표의 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온 이상돈 의원도 징계대 전당대회 사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밀양 세종병원 화재 38명 숨져

文대통령 “거듭된 참사 참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 여만인 지난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43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또 발생했다. 세종병원에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많았던데다 초기 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지적된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화재 발생 이후 사고수습 및 안전대책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화재 현장을 방문해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 참으로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다”면서 “우선 유가족과 밀양 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께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연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복지부·국토부·

고용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밀양화재 수습상황 점검과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수습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경찰은 세종병원 화재진압 수사본부를 차리고 합동 감식 등 원인조사와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밀양시는 27일부터 닷새간을 추모 기간으로 선포했다. 합동분향소에는 28일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고, 이날 오후 5000여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다녀갔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26일 다피에트로 파올린 국무원장 명의로 애도 성명을 내고 “사망자들의 안식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애도를 표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102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관련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선다. /임동욱·윤현석기자 tuim@kwangju.co.kr

한파 주춤 광주·전남 평년기온 회복

지난 주 맹위를 떨쳤던 한파가 이번 주중에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하지만, 광주·전남의 최저기온은 여전히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등의 영하권의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광주 최저기온이 영하 6도에서 영하 5도, 최고기온은 2~6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같은 기간 평년(최저기온 영하 5.1도, 최고기온 5.1도)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차차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워졌다가 기온이 올라가는 롤러코스터 식의 날씨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지역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최저기온이 4일 연속 영하 10도 이하를 기록하는 등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 한파로 양식장 어류 집단 동사와 상수도 동파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김현영기자 young@

광주일보
동네책방 - 리버풀 독립서점 ▶18면
호주오픈 4강 정현 금의환향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두근두근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 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도심 속 조밀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안미오메스발전소(추진)

ENERGY 4.0

한국수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사업현황

추진 인연연료전지, 청송풍력, 고흥풍력, 서남해상풍력, 심방진양수태양광
운영 경기연료전지, 노을연료전지, 부산연료전지, 한빛습력, 예천태양광, 고리태양광, 연월태양광, 고리풍력

한국수력원자력은 2005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이 함께 하는 내일의 희망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